독서
활동지



"누가 좀 대신 살아 주면 안 되나?"

고요의 옷장

박사랑 장편소설

다봄

책소개 2012년 문예중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사랑의 장편소설. 작가는 『스크류바』에서 『안녕, 나를 마중하러 왔어』에 이르기까지, 삶과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깊은 통찰과 흥미로운 설정을 조합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매만지는 이야기를 써왔다. 두 번째 청소년 소설인 이번 작품에서 박사랑은 '나 대신 살아 주는 나'라는 매력적인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낯선 환경과 관계 앞에서 자꾸만 움츠러드는 요진, 그리고 하얀 니트를 입으면 나타나는 '또 다른 나'. 『고요의 옷장』은 힘든 하루를 대신 맡기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 갈등과 불안을 거쳐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 보게 하는 이야기다.

줄거리 열일곱 살 '요진'에게 고등학교의 첫날은 시작부터 쉽지 않다. 어릴 때부터 벅차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옷장 속에 숨어들곤 했던 요진은 입학식 날 아침에도 옷장 안에서 잠시 숨을 돌린다. 낯선 교복들로 붐비는 버스에서, 교실의 어색한 공기 속에서 요진은 생각한다. '누가 나 대신 여기 있어 줬으면. 딱 일주일만 견뎌 주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잘할 텐데.' 그날 집에 돌아온 요진은 옷장 안에서 못 보던 흰 니트를 발견한다. 니트를 입는 순간, 요진 앞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나'가 나타난다. 그 애는 요진에게 자신을 "네 소원"이라고 말한다. 이제 요진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하루를 또 다른 나에게 맡길 수 있다. 그 애는 요진 대신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수업을 듣는다. 요진은 옷장 속에 머문 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하루를 잠시 내려놓고 안도한다. 하지만 곧 이 완벽해 보이는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자기 삶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사이에서 요진은 갈등한다. 하얀 니트는 잠시 요진을 현실에서 도망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피하고 싶었던 마음과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

작가 소개

박사랑 2012년 문예중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스크류바』, 장편소설 『우주를 담아줘』 『안녕, 나를 마중하러 왔어』 등이 있다. 하지 못한 말들을 아껴 소설로 옮긴다. 고요를 꿈꾸지만 여전히 소란한 사랑.

활동 목표

1.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계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사춘기 감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성장기에 좋은 우정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자기 삶을 직면하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의 삶에 적용해 자신을 응원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

* 책을 읽기 전에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1. 『고요의 옷장』은 청소년 성장 소설입니다. 성장 소설은 주인공의 육체적 · 정신적 성장 과정을 형상화한 소설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인공이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요의 옷장』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 내적 갈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제시문을 참고하여 소설에서의 '갈등'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세요.

소설의 갈등

갈등(葛藤)이란, '칡나무 갈(葛)' 자와 '등나무 등(藤)' 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등나무 가지와 칡이 이리 저리 꼬여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심리나 세계 속에서 인간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대상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갈등의 역할은 무엇일까? 갈등 없는 소설은 이야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 갈등이 없으면 사건들이 별 볼일 없는 일상의 나열로 끝나버릴 수 있다.

소설 속 갈등은 사건을 전개시키고 그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소설의 구성 단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흥미와 재미를 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실제 삶 속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소설 갈등의 유형

갈등은 크게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고, 외적 갈등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외적 갈등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환경과의 대립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

인물과 그 주변 인물, 환경, 사회 등과의 대립으로 빚어지는 갈등이 바로 외적 갈등이다. 인물과 갈등이 발생하는 외적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타인, 물리적 환경, 사회,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등이 대표적이다.

• 개인 vs 개인

소설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 사이의 갈등.

우리는 친구들끼리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하다못해 누가 급식을 먼저 먹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말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을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한다.

예)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나'와 점순이.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갈등 관계에 놓인다.

• 개인 vs 자연

한 인물이 자연환경과 부딪쳐 싸우며 겪게 되는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을 담은 소설은 보통 인간의 도전 정신과 굳센 의지, 거대한 자연의 힘 등을 장엄하게 보여준다.

예)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장대한 바다로 나간 노인은 드디어 거대한 청새치를 잡게 되지만 워낙 힘이 세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뒤이어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가 청새치를 노리는 바람에 노인은 다시 이들과 사투를 벌인다. 자연을 이기려고 하는 산티아고 노인과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자연 사이의 대결이 흥미 진진하다.

• 개인 vs 사회

인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와 규칙 등에 의해 겪게 되는 갈등. 한 개인을 억누르는 사회 제도나 윤리 규범과의 갈등이다.

예) 허균의 고전소설 『홍길동전』. 서자인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게다가 신분이 낮아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가 뛰어나도 꿈을 펼칠 수가 없다. 길동의 갈등의 원인은 그가 몸담고 있는 조선 사회의 신분제도 때문이다.

• 개인 vs 운명

한 인물이 타고난 운명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갈등.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과 이에 대항하는 인간의 대립이 바로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아킬레우스 이야기. 여신 테티스는 아들 아킬레우스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음을 맞을 것을 걱정하여 불사의 힘을 주는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를 목욕시켜서 불사의 몸으로 만든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어떤 무기에 찔려도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지만 테티스가 아킬레우

스의 발목 부분을 잡고 목욕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만은 스틱스 강에 닿지 못한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목 부분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된다. 인간으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결국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타나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 인간의 마음을 내면이라고 하는데, 내적 갈등은 바로 이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의미한다.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내적 갈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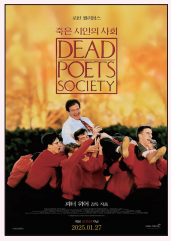
예) 이오덕의 「꿩」에서 보면 주인공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② 『고요의 옷장』에서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을 미리 감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침대에 누워 추적거리는 빗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옷장을 애절하게 바라봤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그냥 써 버리면 되지,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학교는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었다. 누워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뒤척이다 결국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몸을 일으켰다. 일단 씻기만 해 보자, 나가는 건 그 뒤에 결정해도 돼.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양치질을 하고 세수까지 마쳤다. 조금 전까지 뿌옇던 눈앞이 맑아졌다. (81쪽)

③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는 다른 소설과 영화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책『죄와 벌』	'자신이 초인인가, 벌레인가'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겪는 극심한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을 묘사했다. •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죄와 벌』(김연경 옮김, 민음사, 2012)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진정한 꿈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는 학생들의 고뇌를 담아냈다. • 피터 위어, 〈죽은 시인의 사회〉(1989)

④ 위 작품 외에 내가 읽거나 보았던 내적 갈등을 다룬 소설과 영화가 있나요? 그 작품은 내적 갈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느껴지는 부분에 밑줄을 치며
『고요의 옷장』을 읽어 보세요.

책을 읽고 나서

CHAPTER 1 혼자 있고 싶은데 또 혼자 있기 싫어

* 등장인물의 특성과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며『고요의 옷장』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빈 곳에 정리하고, 인물을 소개해 보세요.

고요진	고유진

구주연	윤다미	이우신	전태후
			수학 학원에서 선생님의 질문을 방어해주는 구원의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유진이를 요진이 아닌 '유진'으로 알고 있다. 유진이 '유진'으로 사귄 유일한 친구.

2. 주인공 요진(유진)을 중심으로 인물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관계를 알아보세요.

요진 ↔ 요진

① 고등학교 입학식 날 요진이가 '혼자 있고 싶은데 또 혼자 있기 싫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진 ↔ 유진

② 요진이가 자신의 소원인 '유진'이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③ 요진이는 유진이 덕분에 힘겨운 날을 수월하게 보내는 것에 안도하지만, 어느 날부터 유진이가 자신으로 사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사례를 들며 이야기해 보세요.

요진 ↔ 다미

④ 요진이와 다미의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하게 된 사건과 그 후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요진 ↔ 주연

⑤ 요진이에게 주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요진이와 주연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해 주세요.

유진 ↔ 유진

⑥ 유진이가 요진이 대신 수학 학원에 가는 날 유진이의 루틴을 말해보고, 유진이가 루틴대로 사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유진 ↔ 태후

⑦ 태후가 유진이를 요진이 아닌 유진이라고 불렀을 때 유진이 자신의 이름을 '요진'으로 고쳐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진 ↔ 주연

⑧ 주연이는 유진이가 요진이가 아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진이에게 왜 비밀로 하자고 했을까요?

요진 ↔ 유진, 주연, 우신

⑨ 유진, 주연, 우신을 중심으로 수련회 화재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유진 ↔ 요진

⑩ 요진이가 옷 정리를 하면서 하얀 니트를 옷 수거함에 넣은 이유를 요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 보세요,

3. 위에서 파악한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계를 참고하여 줄거리를 완성해 보세요.
(다섯 문장 이내)

＊ OX 퀴즈

요진&유진의 니트 사용법

두 사람의 니트 사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하얀 니트를 입으면 니트에 깃든 '또 다른 나'가 나온다. ( )
- 하나가 밖에 있는 동안, 다른 하나는 옷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 )
- 옷장 안에 있는 동안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다. ( )
- 나와 또 다른 나는 옷장 안에서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답장이나 좋아요 같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 )
- 옷장 안에서는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
- 내가 니트를 벗고 옷장 밖으로 나오면, 또 다른 내가 겪은 일과 그 일을 어떻게 느꼈는지가 나의 기억으로 옮겨온다. ( )

CHAPTER 2 마음은 왜 마음대로 안 될까?

* 책을 읽고 사춘기의 혼란스러운 마음의 특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제시문과 질문을 토대로 사춘기 마음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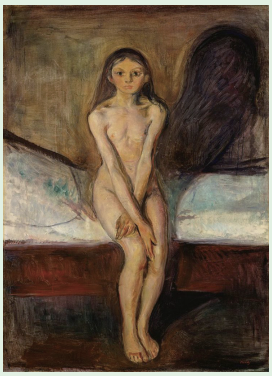
(가) 시험은 대체 왜 볼까. 뭘 시험하겠다는 걸까. 그걸로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짜증이 의문을 타고 늘어졌다.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공부. 그렇다고 때려치울 용기도 없고 안 한다고 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38쪽)

(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장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저 평화롭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일이 몰아닥치는지. 사실 몰아닥치는 건 일이 아니라 감정인 것을 알고 있었다. 다미도 주연도 생각하기 싫었다. 그들 모두와 멀어지고 싶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마음이라는 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 왜 내 마음인데도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을까. (61쪽)

(다) 그 목소리와 함께 마음속의 폭풍이 잠시 멎었다. 주연은 여느 때와 같이 엷게 웃었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밀려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괜찮아, 하고 말했다. 그런데 너 학원 가는 날 아닌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주연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 순간 입을 닫았다. 그 일이 진짜냐고 물을까 봐. 물어야 하나, 아니면 묻지 않아야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답은 없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뒤죽박죽된 마음을 어쩌지 못하다 뭉친 먼지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75쪽)

(라) 답 없는 핸드폰을 쳐다만 보다가 던져두었다. 그냥 다미한테 내 폰 줘 버릴까. 나는 공기계 써도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려나? 내 폰인데,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생각만으로도 짜증이 벌컥 치솟았다. 내 마음이란 건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1도 모르겠네.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다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울, 짜증, 슬픔, 괴로움 등이 뒤섞인 머릿속은 그저 무겁기만 했다. 부정적인 감정은 무거운 거였어. 들고 일어날 기운이 없네. (90~91쪽)

(마) 에드바르 뭉크의 〈사춘기〉는 한 소녀가 다리와 두 손을 모으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그림이다.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뒤쪽 벽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소녀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소녀에서 여성으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나아가야 하는 사춘기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만큼 강렬하다. 아직 환상과 현실의



에드바르 뭉크, 〈사춘기〉(1894)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시기라 환상 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33쪽 하지현 정신건강전문의 추천의 말)

① (가)~(다)는 요진이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과 주위 친구들도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나요? 어떤 일로 뒤죽박죽된 혼란스러운 마음을 들었나요?

② (라)의 밑줄을 포함한 사춘기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 나에게 자주 찾아오고 제일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예: 우울 짜증 슬픔 괴로움 불안 두려움 부러움 등)

③ (라)의 밑줄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질량, 색깔, 은유, 비유 등등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예: 부정적인 감정은 무거운 거였어. 들고 일어날 기운이 없네. / 불안은 마음의 좀벌레야. 마음을 천천히, 조금씩 갉아먹거든.)

④ (마)의 밑줄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⑤ 아래 제시문에서 밑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엄마가 아끼던 접시를 깼을 때, 쪽지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와 다퉜을 때 나는 매번 옷장 속에 숨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는 한숨을 쉬거나 눈을 흘겼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어." (7~8쪽)

2. 사춘기 감정 변화를 잘 묘사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2〉를 『고요의 옷장』과 비교하며 감상해 보세요.



13살이 된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매일 바쁘게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를 운영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감정인 '불안', '당황', '따분', '부럽'이가 본부에 등장하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제멋대로인 '불안'이와 기존 감정들은 계속 충돌한다. 결국 새로운 감정들에 의해 본부에서 쫓겨나게 된 기존 감정들은 다시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시작하는데…… (출처 : 네이버 영화)
• 켈시 맨, 〈인사이드 아웃2〉(2024)

① 〈인사이드 아웃2〉와 『고요의 옷장』을 비교하여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② 영화와 책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사춘기 성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

CHAPTER 3 닮았지만 다른 수달과 해달

* 책을 읽고 참된 우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제시문과 질문을 토대로 등장인물의 우정을 살펴보세요.

(가) "오늘 왜 왔어? 시험 끝났잖아?"

"그냥."

주연은 자주 그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수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나도 그냥 아는 거겠지. 오랜 시간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주연과는 이미 가까웠다. 주연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도 신기할 정도로 다 알았다. 또 다른 나라도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연은 별말 않고 내 옆에서 걸었다. 걷다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속도를 늦췄다. 좁은 길이 나오면 앞서 걸었고 넓은 길이 나오면 다시 옆으로 왔다. 주연과는 말이 없어도 편했다.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서로 아는 것이 있었다. 언젠가 주연에게 너도 그러냐고 묻고 싶었다. 오늘은 아니고 언젠가 함께인 날에. (46~47쪽)

(나) 다미는 와, 예쁘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순간 치미는 불쾌함을 애써 누르고 다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다미는 핸드폰을 주지 않고 말했다. 너보다 내가 사진 잘 찍잖아, 그냥 내가 찍을게.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할 수 없어 화가 났다.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화가 가라앉을까. (78쪽)

(다) 한참 동선을 그려 나가던 다미가 짜증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구주연 걔 뭐냐. 단체 활동 모르냐고. 나이를 처먹었으면 처먹은 값을 해야지. 다미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자 다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거 짝춤이 많아서 짝수여야 되는데 걔가 빠지니까 뭐가 안 맞잖아. 짜증 나는데 그냥 우현서도 하지 말라고 할까? 춤도 개 못 춰서 가르치기도 빡치는데. 다미의 어떤 말에도 그래, 맞다고 대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니, 틀리다고 지적하지도 못했다. 계속 입을 닫고 있는 나를 다미가 쳐다봤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장 싫은 건 나였다. (145쪽)

(라) "이걸 왜 네가 갖고 있어? 구주연 거잖아."

"뭐래, 주웠다니까."

다미는 내 손에서 폰을 빼앗듯 낚아챘다.

"어디서? 어디서 주웠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다미와 나는 잠시 서로 말없이 쳐다봤다.

"그거 나 줘. 내가 주연이한테 전해 줄게."

"웃긴다. 네가 뭔데? 이게 구주연 거라는 증거 있어?

"내가 알아, 이거 분명히 주연이 거야."

"어이없다. 너 구주연이랑 친해?"

다미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평소 같으면 그냥 멈췄을 테지만 오늘은 그러기 싫었다.

"어, 친해." (182~183쪽)

(마) 참지도 못할 울음을 삼키며 나는 수달과 해달을 떠올렸다. 머리가 하얀 게 수달, 까만 게 해달이었던가. 반대였나. 수달은 코가 둥글었나, 아니면 해달이 둥글었나. 코가 각진 게 수달 아니 해달, 아니 아니.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 끝에 주연이 웃고 있었다. 닮았지만 다른 수달과 해달, 그리고 고요진과 구주연. 언니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나 같았던 나의 구주연. 잘 가, 또 봐. 다시 꼭 만나. 나 기다려 줘. 가끔 잘 지내는지 들여다봐 줘. 꿈에라도 찾아와 줘. 여전히 구주연은 고요진이고 고요진은 구주연이니까. (217~218쪽)

① (가)~(다)를 토대로 다미와 주연이의 우정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② 요진이가 (나), (다)의 밑줄처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요진이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③ (나), (다)의 요진이와 (라) 밑줄의 요진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진이가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④ (마)의 밑줄의 의미를 해석하여 서술해 보세요.

2. 친구, 우정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가) 어색한 시간은 길지 않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도 다미와 헤어져 혼자 남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 줘야지, 한편으론 친구라고 이 정도까지 해 줘야 돼? 사이에서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 줄줄이 이어지던 생각을 끊으려 머리를 흔들었다. 혼자가 편해. 고요하고 평온하고 얼마나 좋아. (79~80쪽)

(나) "고요야."

주연은 나를 불러 놓고도 말을 잇지 않았다. 듣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끄덕였다. 말로 전할 수 없는 뭔가가 건너가고 돌아왔다. 주연과 내가 나눈 것이 같지 않아도 괜찮았다. 몰라도 알았고 보이지 않아도 충분했다. 나는 분명히 마음을 떼어서 건넸는데 마음은 비지 않고 오히려 가득 차올랐다. (76쪽)

① (가)의 밑줄 부분과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② (나)의 밑줄 부분처럼 친구로 인해서 마음이 충만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③ 나에게 '수달과 해달'같은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3. 제시문을 참고로 다양한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함께 있으면 서로 즐거운 우정, 일상생활에 서로 도움이 되는 우정, 서로 존경하는 우정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인간사 최고의 덕목 중 하나로 봤다. 교실에서 '우정'이 가득하면,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수업은 활기가 넘칠 것이다. 인성 교육의 나침반은 '우정이 가득한 교실 만들기'를 가리켜야 한다.

–「[칼럼] 박주희 박사의 교육 산책: 즐거운 우정, 도움되는 우정, 존경하는 우정」에서, 조선일보(2026년 3월 31일 자)

㈏ 우정과 관련된 고사성어 몇 가지

-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서로 내놓고 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를 뜻한다.
-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아의 사귐이 매우 친밀하였다는 의미, 즉 매우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귐을 이르는 말.
- 교칠지심(膠漆之心) 아교(膠)와 옻칠(漆)처럼 끈끈한 사귐이란 뜻.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교분(交分)을 이르는 말.
-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 친구나 사람을 가려 사귀라는 말.
- 백아절현(伯牙絶鉉)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어 버렸다는 뜻으로, 자기를 알아 주는 절친한 벗, 즉 지기지우(知己之友)의 죽음을 슬퍼함을 이르는 말.
- 붕우책선(朋友責善) 친구는 서로 착한 일을 권함. 참다운 친구라면 서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권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한다.
- 죽마고우(竹馬故友)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이르는 말.
- 포의지교(布衣之交) 구차하고 어려운 시절의 사귐, 또는 신분 · 지위 · 명리(名利)를 떠나 순수한 벗으로 사귐을 이르는 말.

① ㈎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 가지 우정은 무엇인가요?

② 세 가지 우정 중 내가 맺고 싶은 우정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와 ㈏를 참고로 우정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고, 진정한 우정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정이란,

CHAPTER 4 고요한 옷장에서 소란한 세상으로

* 책을 통해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가) 아무튼 유진 덕에 나는 의연함을 얻었다. 어려운 일은 유진에게 넘기면 되니까. 불편한 마음도 없이 벌렁 드러누웠다. 어차피 유진이 돌아올 때까지 내 할 일은 쉬는 것뿐이야. (72쪽)

(나)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침대에 누워 추적거리는 빗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옷장을 애절하게 바라봤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그냥 써 버리면 되지, 하는 마음과 그래도 학교는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었다. (81쪽)

(다) 시험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번 시험은 잘 보겠다, 하면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시험 볼 준비가 된 건 유진이었지, 나는 아니었다. 또 유진에게 수학 시험을 넘기면, 넘기면……. 거기서 더 생각이 나아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버렸다. 샤워하는 것마저 너무 힘들게 느껴져 옷장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너무 많은 것을 유진에게 기대고 있나. 아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두 마음이 싸우다가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95쪽)

(라) 별수 없이 반듯이 누워 천장을 봤다. 옷장 안의 흰 니트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는데 어째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답도 없는 질문에 한숨만 쌓였다. 혹시 주연은 알려나. 알아도 이걸 어떻게 말해. 생각의 끝은 허무하기만 했다. (95~96쪽)

1. 제시문을 토대로 주인공 요진이의 내적 갈등을 살펴보세요.

① (가)~(다)를 토대로 요진이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무엇인가요?

② 나에게 요진이처럼 나 대신 살아주는 또 다른 내가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③ 요진이가 ㈑의 밑줄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제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그 애 말대로 기억은 자연스레 나에게 넘어왔다. 폰과 패드가 연동되는 것처럼 그 애와 나의 기억이 동기화되는 느낌. 그 애의 하루는 나와 별다를 게 없어서, 내가 할 만한 말을 하고 할 만한 행동을 해서 거북하지 않았다. 그 애는 정말 '또 다른 나'가 분명했다. (30쪽)

㈏ 그 애는 영어 쌤의 설명에 맞장구도 잘 치고 풀라는 문제도 제법 잘 풀었다. 심지어오늘 잘 푸네? 하고 칭찬도 들었다. 영어 귀신이 들어왔나 봐요, 답이 보여요! 그 애의 농담과 이어지는 웃음에 나는 묘하게 불편해졌다. 어떤 기분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목뒤에 걸리적거리는 옷의 라벨처럼 뭔가 거슬리는 기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걔는 가짜예요, 제가 진짜라고요! 하고 외치고 싶었다. 영어 쌤은 내가 나라는 것을 알아봐 줄까? 내가 나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영어 수업은 끝났고 그 애가 옷장 문을 열었다. (35쪽)

㈐ 요진은 버스 타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해 걷는 길을 택한다.

집 밖으로 나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그러면 쪼그라들었던 숨길이 트이는 기분이다. 오전에 비가 와서인지 흙 내음이 끼쳐 온다. 여름 냄새가 길 여기저기에 떠돈다. 나는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도 공간도 냄새로 기억하는 편이다. (121~122쪽)

㈑ 옷장 문이 열리자마자 니트를 벗으려는데 유진이 내 팔을 잡았다.

"아직 수학 학원 남았는데."

"됐어, 오늘은 안 가고 쉴 거야."

"싫어."

"뭐?"

말문이 막혔다.

"수학 학원은 원래 내가 다니던 거니까 그냥 갔다 오겠다고."

"네가 어딨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넌 그냥 내 대체품이야. 너도 나고, 나도 나야. 네 생각 같은 건 없어도 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48~149쪽)

(마) 나를 이루는 건 무엇일까. 육체냐, 정신이냐의 문제를 넘어 그 정신이 나인 것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내 기억이 나인지 감정이 나인지 그 모든 게 합쳐진 게 나인지. 옷장에 있는 동안의 나는 내가 아닌가? 유진은 나일 수 있나. 모두가 나로 알고 있으니 나인 것은 맞는데. 기억도 육체도 공유하니까 나지. 그런데 그뿐이라고? 나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가를 수 없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내가 아닌지, 도대체 나라는 것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나와 또 다른 나, 나와 유진, 옷장 안의 나와 옷장 밖의 나가 뒤섞여 흔들렸다. (113쪽)

① 『고요의 옷장』전체 내용을 떠올리고, (가)~(라)를 참고하여 요진이와 유진이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내 생각을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요진이와 유진이가 (같은 사람 /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② 이어서 (마)의 밑줄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가 나이고,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③ 나에 대해 아는 것은 왜 중요하고, 나를 알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제시문을 바탕으로 자기 삶을 직접 마주 하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 엄마가 아끼던 접시를 깼을 때, 쪽지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와 다퉜을 때 나는 매번 옷장 속에 숨었다. (7쪽)

(나) 그 자리에 있는 건 분명 나였지만 내가 아니었다. 껍데기만 남은 내가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다. 나는

내가 유진이라고 여겼다. 이건 유진의 삶이야, 오늘만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야. 다미가 욕하는 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다미와 친한 것도 내가 아니야. 나는 오늘만 유진 대신 살아 주는 거야.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어. 나는 곧 옷장으로 돌아갈 거야 (157쪽)

㈐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도 내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시험 마지막 날이었다. 하필 수학 시험이었고 하필 다미와 약속이 있었다. 나는 밤새 공부를 했는데도, 겨우 못 풀던 문제를 풀었는데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동이 터 오는 것을 확인하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니트를 입지 않고 그대로 얼마간 앉아 있었다. 웅크려 앉아서 공부했던 것을 입 밖으로 중얼거렸다. 틀린 것도 막히는 것도 없었다.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서운 것이 수학 시험인지 다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럴 때 숨기만 하는 나겠지.

결국 흰 니트를 입었다. 유진은 안쓰럽다는 눈길로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약하고 불쌍한 내가 여기 남고 강하고 단단한 유진이 밖으로 나갔다.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또 나를 싫어하고 싶지도 않았다. 잠시 숨어 있으면 곧 지나갈 바람이었다. 비바람에 맞서지 않고 피하는 건 현명한 행동이야. 억지로 자기합리화를 해 가며 유진이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다. (102쪽)

㈑ "사고 때 화상 흉터 입은 거야. 원래는 여기서부터 무릎 아래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조금씩 옅어지더니 이것만 남았어."

"아팠겠다."

"기억도 잘 안 나."

"다행인가."

"다행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더 잘 기억하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어, 그냥 살아 있는 거 말고. (137~138쪽)

㈒ 자려고 누워도 잠은 잘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지만 이상한 꿈을 꾸고 울면서 깼다. 꿈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눈물은 계속 흘렀다. 젖은 얼굴을 닦아 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옷장으로 들어갈까 하다 말았다. 이제 옷장은 더 이상 내 피난처가 되어 주지 못했다. 도망갈 데가 없었다. (186~187쪽)

"그럼 이제 사고 났던 날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요진 학생도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는 바로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이스티를 마셨다. 내가 거기 있었던 게 맞을까. 니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망설이다 허리를 곧게 펴고 새 숨을 들이마셨다.

"네, 맞아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거기 있었어야만 했고 거기 있었던 게 맞았다. (189쪽)

(바) 그렇게 지내는 사이 기말고사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 좋은 성적이 나올 리 없겠지만 이번에는 유진에게 맡기지 않을 생각이었다. 망쳐도 내 몫. 거기까지가 바로 나니까. (220쪽) 가지고 나온 옷들을 의류 수거함에 망설임 없이 밀어 넣었다. 내일이 되면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나에게는 이게 최선이었다. 유진아, 안녕. (226쪽)

(사) 결국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려면 바깥의 소음이 필요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같이 바보가 되어 웃는 소리, 투정 부리고 또 위로하며 쌓이는 소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화내는 소리까지도 내 숨소리보다는 커야 했다. 나는 여전히 고요한 나날을 꿈꾼다. 또 다른 내가 대신 내 일을 해결해 주는 꿈 역시 자주 꾼다. 그래도 일어나면 밖으로 나간다. 싫다고 싫다고 백번 한숨 쉬면서도 오늘을 산다. 씩씩할 자신도 명랑할 여유도 없지만 일단 뭐든 해 본다. 고요한 옷장에서 소란한 세상으로 오늘도 나간다. (227쪽)

(아) 안 살고 싶어. 다 유진에게 미루고 도망치고 싶어. 그 생각이 들면 몸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재 보지는 않았지만 1톤쯤은 나갈 것 같은 마음을 억지로 들지도 못하고 축 처졌다. (97쪽)

① (가)~(다)를 참고로 요진이에게 옷장과 니트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 보세요.

② (라)에서 주연이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밑줄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가)~(다)의 요진이와 (마)의 밑줄의 요진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④ ㈏의 요진이는 유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요진이가 되어 유진이에게 작별의 쪽지를 써 보세요.

⑤ 앞으로 요진이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의 밑줄을 참고로 요진이의 앞날을 상상해보세요.

⑥ 나도 ㈐와 같을 때가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도 요진이의 '옷장'과 같은 존재가 있나요? 나는 ㈐와 같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CHAPTER 5 에필로그 _ 주연에게 쓰는 편지

* 주연이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연을 기억하는 것, 그것 하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해야 할 일이 하나씩 늘어 갔다. 언젠가 주연이 말했듯 살아서 울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마음껏 슬퍼하는 것. 울다가 울다가 가끔은 웃는 것. 그리고 일상을 사는 것. (220쪽)

Dear.